

대명사 ‘나’와 ‘우리’의 사회와 인지 표상 차이*

이 재 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대명사의 통사단서가 사회적 표상의 정서적 평가에 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3개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대명사의 수(단수, 복수)와 인칭(일인칭, 삼인칭) 단서를 점화하여 정서 단어(긍정, 부정)의 명명시간을 SOA 150ms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명사 인칭과 정서 단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일인칭 단복수 대명사는 긍정 단어보다 부정 단어의 반응이 빨랐고 삼인칭 대명사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다. 실험 2에서는 세 변인의 효과를 SOA 1000ms에서 관찰하였다. 세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에서는 일인칭 단복수 대명사와 다른 복수 대명사의 평가적 차이를 SOA 150ms에서 관찰하였다. 일인칭 단복수 대명사의 명명시간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에서 차이가 없었고, 일인칭 복수 대명사만이 긍정 단어보다 부정 단어에서의 반응이 빨랐다. 세 실험에서 일인칭 대명사인 단수(‘나’)와 복수(‘우리’)는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이 빨랐고, 일인칭(‘너’, ‘너희’)과 삼인칭(‘그’, ‘그들’)은 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가 사회적 표상의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다. ‘자신-내집단’은 공통적으로 ‘타인-외집단’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표상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어의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의 대응적 관계를 시사한다. 사회 인지의 다수준적 표상 이론으로 세 실험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명사, 점화효과, 사회 인지, 정서적 평가, 명명과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2695).

† 교신저자: 이재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E-mail: leejaeho@kmu.ac.kr

언어는 임의적인 상징에 불과하지만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는 개인의 지식 표상과 대인간의 소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Holtgraves & Kashima, 2008). 언어의 표상과 소통 기능은 언어가 지니는 추상적 의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어휘로서 '사과'는 실제의 사과와 아무런 유사성이 없지만 '사과'에 부여된 참조적 의미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과에 대한 추상적인 표상이 가능하며 하나의 어휘로 사과의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모든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명사가 그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법 혹은 통사체계를 지니고 있어 언어의 기능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 준다. 순수한 통사적 기능만을 지닌 어휘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불리는데 대명사 같은 기능어는 통사적 의미만을 지닌다. 일반 명사(예, '사과')가 세상의 참조적 의미를 지닌다면 대명사는 언어 맥락 내에서 참조적 의미를 지칭할 수 있다. 대명사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는 일상 언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가 인지적 처리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이정모, 이재호, 2000; Banaji & Hardin, 1996). 예를 들어 언어상대성이론에서는 언어가 사고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언어범주화이론에서는 언어 기술의 추상적 수준이 사회적 집단 간 표상에 작용한다고 하였다(Holtgraves & Kashima, 2008).

대명사는 수, 인칭, 성별 등의 통사(syntactic) 단서를 지니는데 이들 단서는 모두 사회적 의미들이다. 수(number)는 개인과 집단을 지칭하며 인칭(person)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며 성별(gender)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다.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가 사회적 단서에 대응된다면

대명사의 통사적 처리가 사회적 표상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 표상은 첫째, 인지적 범주와 정서적 평가가 통합된 태도의 표상이며(Bargh, Chaiken, Raymond, & Hymes, 1996; Fazio, Sanbonmatsu, Powell, & Kardes, 1986; Macrae & Bodenhausen, 2000; Musch & Klauer, 2003), 사회 정보의 인지적 범주는 개인의 지식이지만 이 지식에는 정서와 가치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정체성에 기반이 된다(Hogg & Williams, 2000). 둘째, 이 표상의 활성화나 동기적 행동은 상당히 자동적이고 의식화 과정으로 수행된다(Blair & Banaji, 1996; Devine, 1989; Fazio & Olson, 2003;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셋째, 이 표상은 다수준적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졌다(Brewer, 1991; Brewer & Gardner, 1996). 개인 수준, 관계 수준, 그리고 집단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서 사회적 표상에도 작용한다면 언어가 전반적 마음에 작용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가 사회적 범주나 정서적 평가에 작용하는 과정은 언어와 마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명사가 지니는 통사단서(syntactic cue) 중에서 수와 인칭 단서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표상이 개인, 관계, 집단의 다중적 표상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에 따르면 수 단서인 단수와 복수는 개인과 집단 수준의 범주적 표상에 대응되며, 인칭단서는 사회적 범주의 '포함(inclusion)'과 '배제(exclusion)'의 표상에 대응된다(Perdue, Dovidio, Gurtman, & Tyler, 1990; Sendén, Lindholm, & Sikström, 2014). 대명사의 단서가 그에 대응되는 사회적 범주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태도의 특성

으로 보아 사회적 표상의 정서적 평가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Hogg & Williams, 2000; Slatcher, Vazire, & Pennebaker, 2008). 사회적 표상은 자동적이고 의식하의 암묵적 과정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민감한 과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Musch & Klauer, 2003; Spruyt, Hermans, De Houwer, & Eelen, 2004). 나아가 사회적 표상의 다수준적 접근에서는 표상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정할 수 있기에(Brewer, 2007; Gaertner, Sedikides, Vevea, & Iuzzini, 2002; Leonardelli, & Toh, 2015), 대명사의 통사 단어의 정서적 평가에 대한 증거들은 사회적 표상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사의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

대명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단서는 성별단서이다. Banaji와 Hardin(1996)은 명사의 성별 의미가 대명사의 자동적 처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성별점화효과(gender priming effect)를 제안하였다. 점화효과는 언어 자극의 제시가 그 자극과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는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현상이며 의미점화 전통에서 출발하였다(Collins & Loftus, 1975). 의미점화효과는 자극들의 표상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활성화확산이론에 근거한다(Musch & Klauer, 2003). Banaji와 Hardin(1996)은 참가자에게 점화 단어 '엄마'를 순간적으로 제시한 다음 목표단어인 대명사 'he' 혹은 'she'에 대한 점화단어의 성별의 일치여부를 참가자에게 판단하게 하였고, 그 결과, 'he'보다 'she'에 대한 반응이 빨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점화단어를 제시하는 동안에 단어의 성별 의미가 활성화

됨을 시사한다. 즉 '엄마=>여성'의 활성화가 대명사 성별의 단서와 불일치하는 남성 대명사('he')보다 일치하는 여성 대명사('she')의 반응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점화단어가 제시되고 목표단어의 사이 시간인 SOA(stimulus onset asynchrony)¹⁾가 300ms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은 점화 단어에 대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어려운 자동적인 처리가 반영되는 조건이다(Herring et al., 2013; Neely, 1977, 1991). 이재호(2015)는 대명사의 성별과 참가자의 성(sex)의 일치성 효과를 점화명명과제²⁾에서 관찰하였다. 참가자의 성과 대명사 성의 일치성이 평가적 단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가자의 성(남, 여)과 대명사의 성별(남성, 여성)이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하는 조건보다 긍정단어에 대한 반응이 부정단어에 대한 반응보다 점화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 자신의 성이 대명사의 의미적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단서가 됨과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별이 사회적 범주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속성이 되며 이

1) SOA는 점화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에서 다음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직전 시점까지의 사이 시간이며, 이 시간의 조작은 자동과 통제 과정의 민감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정서적 평가의 과정이 탐지되는 시점은 SOA 300ms이내이다(De Houwer et al., 2001).

2) 명명과제(naming task or pronunciation task)는 점화 자극을 응시한 다음 목표자극의 단어를 음성으로만 발성하는 과제이다. 목표자극이 제시된 시점에서 발성이 마이크에 입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종속측정치다. 이 과제는 단어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으며, 반응시간이 매우 짧고, 변산성도 적으며, 오류도 극히 낮다. 독립변인의 효과에 보수적이지만 정서적 점화에는 민감하다고 알려졌다(이재호, 김성일, 1998).

들 속성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명사의 성별단서가 사회적 범주의 자동적 활성화에도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대명사의 다른 통사단서인 수와 인칭 단서는 사회적 표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성별단서는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지칭하지만 수단서인 단수와 복수는 각각 개인과 집단을 지칭한다. 사회적 표상에서 개인은 자신과 타인으로, 집단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된다(Perdue et al., 1990). 수단서인 단수와 복수가 각각 개인과 집단 범주를 지칭한다면 인칭 단서는 개인과 타인 혹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범주를 지칭한다. 개인과 내집단은 일인칭 대명사에 대응되며 타인과 외집단은 이인칭이나 삼인칭 대명사에 대응된다. 집단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서 내집단은 편애(favoritism) 평가를 표상하며 외집단은 폄하(derogation) 평가를 표상한다고 알려졌다(Brewer, 1991; Brewer & Gardner, 1996).

Perdue 등(1990)은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가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가적 점화에 작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복수 대명사인 'we'와 'they'에 대한 긍정과 부정 단어의 점화효과가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들은 내집단과 외집단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의 사용이 집단 간 편향을 무의식적으로 지속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두 가지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즉 의미조건형성 패러다임과 점화패러다임이다. 먼저 의미조건형성에서는 조건자극으로 무의미 철자(예; 'xeh')를 제시하고 내집단 대명사(예; 'us')나 외집단 대명사(예; 'them')에 조건화를 시킨 다음 무의미 철자에 대한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대명사와 연합된 무의미 철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외집단 대명사와 연

합된 무의미 철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점화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집단 대명사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하고 정서 형용사에 대한 'good' 혹은 'bad'의 평가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삼인칭 복수 대명사(예; 'them')에 비해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예; 'us')에 대한 긍정단어는 평가반응이 촉진되고 부정단어는 평가반응이 억제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추가하여 Perdue 등(1990)은 인칭 대명사(일인칭과 이인칭)의 단수('나', '너')와 복수 대명사('너희', '그들')에도 조건화 절차를 적용하여 보았으나 집합 대명사인 일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에 비해서 편애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은 사회적 범주자 자신과 타인의 범주로 표상됨을 강조하고 암묵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적용하여 그들의 균형-일치성(balance-congruency) 이론을 검증하였다. 자신(self)에 해당하는 일인칭 단수 대명사와 타인(other)에 해당하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회적 범주로 대응시키고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각 범주에 연합시켜 IAT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검사단어의 '자신+긍정'과 '타인+부정' 범주의 판단시간이 '타인+긍정'과 '자신+부정'의 판단시간보다 빨랐다. 이 결과는 타인 범주에 비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유사한 과정으로 성별 범주를 긍정과 부정 단어와 연합하여 자신의 범주가 타인의 범주에 비해서 IAT 점수가 빠른 것이 확인되었다. 일인칭 단수 대명사는 개인 자신의 성별 범주와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삼인칭인 타인은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각각 복수와 단수 대명사의 일인칭과 삼인칭 단서의 평가를 관찰하였지만 일인칭에 대한 비교는 없었다. 이재호(2012)는

개인 수준의 단수 대명사의 일인칭 '나'와 이인칭 '너'의 평가적 점화효과를 직접 비교하였다. 단수 대명사인 일인칭과 이인칭은 개인 간(interpersonal)의 맥락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칭하는 인칭단서이다.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 대명사 '나'와 상대인 타인을 지칭하는 이인칭 대명사 '너'가 점화자극으로 제시되고 정서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일인칭 단수 대명사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무려 31ms 차이가 있었지만 이인칭 단수 대명사에서는 11ms에 불과하였다. 사회적 범주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는데, 그것은 일인칭 단수 대명사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에 비해서 긍정단어의 명명시간이 빠르고 부정단어의 명명시간은 느렸기 때문이었다. 이인칭 대명사의 수단서는 일인칭이나 삼인칭에 비해서 자신과 타인 혹은 상대에 대한 편애와 혐하의 대비적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Perdue 등(1990)은 평가판단과제를 사용하여 복수 대명사의 일인칭과 삼인칭을 비교하였고, Greenwald 등(2002)은 IAT를 사용하여 단수 대명사의 일인칭('자신')과 삼인칭 복수 대명사('타인')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재호(2012)는 명명과제를 사용하여 단수 대명사의 일인칭과 이인칭의 범주를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는 사회적 범주를 일부 대명사에 대응시켜 정서적 평가를 관찰하였지만 모든 통사단서를 한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시키지는 못했고, 사용된 과제도 각각 달랐다. 따라서 대명사의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의 대응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서 유형과 과제 간의 수렴적인 결과가 요구된다.

사회적 표상의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

사회적 표상은 두 유형의 이론이 대표적이었다(Hogg & Williams, 2000). 첫째는 정체성이론(identity theory)이며 둘째는 균형이론(balance theory)이다. 정체성이론의 선두 주자인 사회정체성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은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의 속성에 의존한다고 하였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Perdue 등(1990)은 정체성이론에 기반하여 개인과 집단의 표상이 독립적이고 위계적이며 집단이 개인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하향적 표상 체계를 가정하였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의 균형-일치성 이론에서 사회적 표상은 기본적으로 마다-연결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이론은 개인의 마다와 집단의 마다는 긍정 마다와 연결됨을 애초값으로 가정한다. 즉 개인 수준의 자신과 내집단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과 집단의 이원적인 표상을 구성하지만 위계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 정체성이론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연합 관계를 가정하지만 개인의 긍정적 평가가 집단의 긍정적 평가를 결정하여 표상의 균형적인 일치성을 유지한다고 보았다(Cvencek, Greenwald, & Meltzoff, 2012).

두 이론의 차이는 자존심과 표상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정체성이론은 상위 집단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을 결정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심에 집단의 특성이 하향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균형이론은 애초에 개인의 자존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 집단의 속성보다는 개인의 속성이 보다 사회적 표상에 작용하는 힘이 강하다고 보았다. 정체성이론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내집단의

정체성에 보다 잘 동화되지만, 균형이론은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집단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대비적 표상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Greenwald et al., 2002).

정서적 점화의 비대칭성과 점화효과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은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체성이론은 점화과제를 사용하였지만 균형이론은 IAT를 사용하였다. 두 과제 모두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처리에 적용되지만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이재호, 김성일, 1998). 두 과제로부터 수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보다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다.

Greenwald 등(2002)은 사회 인지의 '자신=집단'의 정서적 평가의 일치성이 중요하며, 자신이 중심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타인을 차별적으로 표상한다는 것이다(예;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Greenwald와 Banaji(1995)는 균형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표상은 '자신-긍정'과 '타인-부정'의 평가적 일치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점화자극이 자신이면 부정자극보다 긍정자극에 빠르게 반응하고 점화자극이 타인이면 긍정자극보다 부정자극에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긍정-부정'의 반응과 타인의 '긍정-부정'의 반응 차이는 동일해야 하며 '자신-긍정'과 '타인-부정' 반응과 '자신-부정'과 '타인-긍정'의 차이도 일치해야 한다(예; Banaji & Hardin, 1996; Fazio et al., 1986). 균형이론에서는 '자신-타인' 범주와 '긍정-부정'의 평가가 대칭적으로 교차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IAT의 논리와도 일치한다(Greenwald et al., 2002). 그렇지만 IAT가 암

목적 과정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예; 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이 과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두 범주의 평가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범주의 평가적 과정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IAT 점수는 ('자신-긍정'+ '타인-부정')과 ('자신-부정'+ '타인-긍정')의 점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평가 반응을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셋째, 자극들 간의 조건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과 통제, 암묵과 외현의 과정을 단일 과제에서 조작할 수 없다(예; SOA 조작). 즉 균형이론의 IAT에서는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에 관련된 범주와 평가 표상의 세부적인 조건의 관찰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Musch, & Klauer, 2003).

점화패러다임과 IAT는 서로 다른 암묵적 과제지만 범주와 평가의 상호작용에 관한 방법론적 논리는 동일하다. 즉 ('자신' 혹은 '내집단')과 ('타인' 혹은 '외집단')은 각각 긍정자극의 촉진과 부정자극의 억제에 대칭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점화-목표의 평가적 대칭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은 경험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lauer, Rossnagel 및 Musch(1997)의 연구는 정서의 일치성 효과가 매우 한정된 SOA인 0-100ms조건에서만 관찰됨을 보였고 더욱이 '긍정-긍정' 조건에서만 점화가 촉진적이었다. 이재호(2006)는 SOA 150-250ms에서도 정서 형용사의 '긍정-긍정' 조건의 촉진적 점화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De Houwer, Hermans 및 Spruyt(2001)은 의미적 점화보다 정서적 점화의 일치성 효과가 보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관찰된다고 하였다. 즉 정서적 일치성 효과는 긍정적 정서에서만 관찰되었고, 부정적 정서의 상대적 억제는 명확하지 않았다(예; De Houwer et al., 2001);

Glaser & Banaji, 1999; Klauer et al., 1997; Spruyt et al., 2004).

대명사 점화와 정서 반응의 일치성효과의 비대칭성은 Perdue 등(1990)의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내집단의 대명사('we')는 외집단의 대명사('they')에 비해서 긍정단어의 평가판단의 반응을 촉진시켰지만 부정단어는 두 대명사 간의 차이에 경향성만 보였다. 이들은 의식하기 어려운 시간인 SOA 55-75ms로 점화자극을 제시하였고 차폐자극을 사용하여 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반응시의 평가('good' 혹은 'bad')와 반응 자극의 평가('긍정 단어' 혹은 '부정 단어')의 일치성이 반응시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Herring et al., 2013). 즉 이 과제의 반응에는 반응 간의 의식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Spruyt 등(2004)은 정서적 점화가 매우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점화의 의식적 판단이 정서적 점화의 민감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민감성이 긍정단어의 촉진보다 부정단어의 억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2012)는 일인칭('나')과 이인칭('너')의 단수 대명사를 점화하여 긍정과 부정 단어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어휘판단과제와 명명과제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두 과제 모두 이인칭 대명사보다 일인칭 대명사에서 긍정단어의 반응은 촉진되었지만 부정단어는 과제의 차이가 있었다. 어휘판단과제에서는 두 대명사의 차이가 없었지만 명명과제에서는 이인칭 대명사보다 일인칭 대명사에 대한 반응이 유의하게 느렸다. 이는 목표단어가 의미적 단어인지를 판단하는 과제인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단순히 목표단어를 발성하는 과제인 명명과제가 긍정의 촉진과 부정의 억제 과정에 모두 민감함을 시사한다.

두 과제의 차이는 고전적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Balota와 Loach(1986)의 연구에서 의식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해서 점화효과의 깊이 수준이 달랐다. 예를 들어 어휘판단과제는 'lion'-'tiger'의 직접적인 연합 의미에 민감하였고, 명명과제는 'lion'-'stripe'-'tiger'의 간접적인 연합에도 민감하였다. 또한 명명과제는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점화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역점화(reverse prime)가 발생하기도 하였다(Glaser & Banaji, 1999). 이는 과제의 민감성이 자동적인 긍정적 평가인 자신이나 내집단 편애나 타인이나 외집단의 폄하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예; Brewer, 2007; Perdue et al., 1990).

대부분의 정체성이론은 외현과제나 점화과제를 사용하였고, 균형이론은 IAT를 사용하였다. 두 연구 패러다임의 차이가 이론적 예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점화과제에서 자동적 처리에 민감한 명명과제를 사용하여 두 이론의 차이에 대한 수렴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De Houwer et al., 2001; Herring et al., 2013; Schilling et al., 1998). 특히 이 과제는 점화자극에 대한 목표자극의 촉진(일치)과 억제(불일치)에도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예; 이재호, 2012; Balota & Loach, 1986; Neely, 1977, 1991).

그러면 사회적 표상의 평가 과정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집단 대명사인 '우리'가 점화되면 '내집단' 범주가 활성화되고 내집단의 평가인 '긍정' 정서가 활성화될 것이다. 목표단어가 '사랑'이 제시되면 이 단어의 정서가가 '긍정'이기 때문에 '우리-내집단-긍정'의 표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목표단어로 '강도'가 제시되면 이 단어의 정서

가가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내집단: 부정'의 표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는 정서 일치효과에 의해서 반응시간이 촉진되지만 후자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억제될 것이다. 개인과 집단 수준의 정서적 평가는 각 대명사의 정서단서에 반영된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명명시간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긍정'과 '우리-긍정'은 점화자극의 촉진효과가 목표자극에 반영되며, '나-부정'과 '우리-부정'은 점화자극의 억제효과가 목표자극에 반영될 것이다.

연구문제

이 연구는 대명사의 통사단서가 사회적 표상에 대응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하여 정서적 평가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적 표상의 자동적 처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대명사의 수(개인, 집단)와 인칭(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의 교차적인 비교가 필요하였다. Perdue 등(1990)의 연구에서는 집단과 개인 대명사의 정서적 조건형성 과정을 사용하였지만 집단과 개인 대명사의 조건형성 절차의 조작성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고(이재호, 2012), 점화과제를 적용한 비교는 없었다. 반면에 이재호(2012)는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대비적 표상에 대한 증거를 얻었고, Greenwald 등(2002)은 일인칭과 삼인칭 단수 대명사를 자신과 타인의 범주에 연합하는 IAT를 적용하였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에서 가정한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표상을 직접 비교하는 설계와 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대명사의 수와 인칭을 보

다 체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대명사의 표현, 특히 이인칭 대명사에서 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있다. 국어는 이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너'와 '너희'로 구분하지만 영어는 'you'로 동일하다. 언어적인 특성으로 인해 영어권 연구에서는 이인칭에 대한 단수와 복수의 비교가 없었다(예; Cadinu & De Amicis, 1999; Perdue et al., 1990).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인칭의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점화효과를 추가하고 다른 조건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표상의 이론에서 정체성이론은 개인 수준보다 집단 수준이 사회적 표상에 보다 하향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기에 집단우위 가설로 개념화될 수 있다. 반면에 균형이론은 개인의 자존감이 사회적 표상에 상향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기에 개인현출가설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두 가설은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 과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정서적 점화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단수 대명사 일인칭과 삼인칭은 자신과 타인을 점화하며 일인칭 대명사는 긍정보다 부정 단어의 반응이 빠를 것이고, 삼인칭 대명사는 부정보다 긍정이 빠르거나 둘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복수 대명사의 일인칭과 삼인칭도 각각 내집단과 외집단을 점화하며 단수 대명사에서와 결과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수와 복수 대명사, 즉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차이여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집단의 표상의 우위는 점화효과의 크기로 평가한다. 만약 집단우위 가설이 타당하다면 개인보다 집단의 점화효과, 즉 긍정과 부정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클 것이다. 반면에 개인현출가설이 타당하다면 점화효과의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 일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 대명사에서 긍정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의 크기가 두 이론을 검증하는 주요 단서가 될 것이다. 즉 대명사 인칭과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이 유의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3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요약하면, 실험 1에서는 SOA 150ms 조건에서 단수 대명사('나', '그')와 복수 대명사('우리', '그들')의 정서적 평가의 점화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2는 SOA가 길어지면 정서적 평가의 효과가 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SOA를 1000ms로 조작하였다. 실험 3은 SOA 150ms 조건에서 이인칭 대명사('너', '너희')의 추가적인 점화효과와 다른 집단 대명사('우리', '그들')와의 평가적 점화효과를 비교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1

사회적 표상의 '개인-집단'의 수준은 대명사의 단수 단서 '나-너-그' 인칭과 복수 단서 '우리-너희-그들' 인칭에 대응된다. 만약 언어가 사회적 표상에 대응된다면 언어적 단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표상을 활성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예; Banaji & Hardin, 1996; Hogg & Williams, 2000; Perdue et al., 1990). 즉 사회적 표상은 개인 수준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로 구성되며, 집단 수준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로 구성된다. 개인과 집단의 표상에 대한 관계는 이론에 따라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Perdue 등(1990)의 정체성이론은 집단 수준의 사회적 표상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의 균형-일치성 이론에서는

개인 수준이 우선이라고 하였다. 두 입장은 각각 집단우위가설과 개인현출가설로 개념화될 수 있다(예; 이재호, 2012).

실험 1에서는 대명사 수인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를 한 변인으로 조작하고 대명사 인칭인 일인칭과 삼인칭 조건을 다른 변인으로 조작하여 점화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즉 단수 대명사 일인칭 '나'와 삼인칭 '그'는 개인 수준으로, 복수 대명사 일인칭 '우리'와 삼인칭 '그들'은 집단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개인현출가설은 단수 대명사가 복수 대명사에 비해서 일인칭 대명사의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며 삼인칭 대명사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에 집단우위가설에서는 복수 대명사가 단수 대명사에 비해서 일인칭 대명사의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며 삼인칭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두 가설이 모두 타당하다면 개인과 집단 수준의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점화효과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단수와 복수 삼인칭에서는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점화자극의 촉진과 억제에는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긍정단어의 반응시간과 부정단어의 반응시간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개인현출가설과 집단우위가설에 따르면, 각각 대명사의 수, 인칭, 정서적 평가 간에 삼원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두 가설이 각 수준의 가설을 지지한다면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이원상호작용이 예측된다.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4명이 실험 1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설계는 대명사 수(단수, 복수), 대명사 인칭(일인칭, 삼인칭), 정서 단어(긍정단어, 부정단어)이며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1은 (2*2*2) 삼원피험자내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이재호(2012)의 연구에서 조사된 대명사와 정서 단어를 사용하였다.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에 조사를 첨가하여 점화 단어를 구성하였다(예; '그', '그는', '그를'.... 등). 이들 단어를 조건 당 10개씩 선정하여 점화단어로 사용하였다. 정서단어는 정서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20개씩 선정하였다(예; '사랑', '증오' 등). 실험 1에 사용된 재료들은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먼저 컴퓨터 화면에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100ms동안 제시되었다. 점화단어가 제시된 후 50ms가 경과된 다음 목표단어가 제시되었다(SOA 150ms). 자극 제시의 통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또한 점화단어 이후에 목표단어

가 화면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생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었으며, 이 시간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었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되었으며,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이었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명명반응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1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이다.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는 인텔 펜티엄 호완 기종이었으며, 실험은 윈도우 XP 상에서 Direct 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1에서는 명명과제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반응시간이 200ms 이상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인 988ms 이하인 반응만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 2960개 중에서 45개이었으며, 1.5%를 차지하였다.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및 정서 수준의 명명시간은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대명사 수($F(1,73)=5.43$, $MS_e=583.42$, $p=.022$), 대명사 인칭($F(1,73)=5.67$, $MS_e=1052.36$, $p=.020$), 그리고 정서 수준($F(1,73)=8.11$, $MS_e=917.26$, $p=.006$)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표 1.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및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목표 단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단수	'나' 접화	478 (5.96)	490 (6.13)
	'그' 접화	489 (6.24)	486 (6.12)
복수	'우리' 접화	475 (6.04)	485 (6.13)
	'그들' 접화	483 (5.78)	487 (6.52)

()안은 표준오차.

유의미하였으며, 대명사 인칭과 정서 수준의 이원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73)=7.02$, $MS_e=784.63$, $p=.010$]. 이원상호작용의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인칭 대명사에서는 긍정 단어(477ms)가 부정 단어(491ms)보다 14ms 빨랐으며 [$F(1,73)=19.62$, $MS_e=656.43$, $p=.001$], 삼인칭 대명사에서는 조건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일인칭 단수 대명사에서는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12ms 빨랐으며 [$F(73)=3.45$, $p=.001$] 복수 대명사에서는 긍정 단어가 부정단어에 비해서 10ms 빨랐으며 [$F(73)=2.59$, $p=.01$],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반응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1의 결과를 통해 대명사의 통사단서가 그 단서에 대응되는 사회 표상을 활성화시킨다는 증거를 정서단어의 명명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 모두 부정 단어에 비해서 긍정단어에서의 점화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삼인칭 대명사에 비해서 일인칭 대명사에서 긍정단어의 명명시간이 더 빨랐다. 반면에 부정단어의 명명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실험 1의 결과는 집단 수준(일인칭과 삼인칭 복수 대명사)에서 Perdue 등(1990)의 고전조건과 점화과제 연구를 반복

하였고, 개인 수준(일인칭 단수 대명사와 삼인칭 대명사)에서 Greenwald 등(2002)의 IAT 연구를 반복하였다. 실험 1과 선행의 두 연구를 비교하면, 대명사의 '긍정-부정' 단어의 점화차이와 대명사 간의 긍정단어의 점화효과와의 차이는 일치하지만, 대명사 간의 부정단어에 대한 점화효과에서는 과제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Perdue 등(1990)의 점화과제에서는 그 효과가 없었으며, Greenwald 등(2002)의 IAT는 비교가 어렵다. 이재호(2012)는 명명과제를 사용하여 단수 대명사 '나'와 '너'의 점화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긍정단어는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의 점화효과에서 12ms 차이가 있었다. 실험 1도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가 12ms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정단어는 점화 효과의 양상이 복잡하였다. 선행 연구는 일인칭과 이인칭 간에 28ms의 차이를 보였지만, 실험 1에서는 그 차이가 4ms에 불과하였다. 이는 '나-너'가 '나-그'에 비해서 부정단어의 대비효과(contrast effect)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Lee & Lee, 2005). Greenwald 등(2002)은 타인 범주에 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를 혼용하였기 때문에 이재호(2012)의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재료, 과제, 언어에서 차이가 있다. 이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의 점화효과 차이는

실험 3에서 검증할 것이다.

실험 1은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가 사회적 표상의 활성화 과정에 자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명사의 언어적 단서가 사회적 표상의 평가적 과정에도 작용하여 '자신-타인' 그리고 '내집단-외집단'이 '포함-배제'의 대비로 구성된다는 증거도 얻었다. 또한 두 수준의 점화효과의 크기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사회적 표상에서 두 수준의 포함 표상이 대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표상에서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신과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정체성이론이나 균형이론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해석되며 두 이론을 통합하는 설명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들 결과가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처리의 산물인가? 이것은 실험 2에서 검증되었다.

실험 2

실험 1에서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 민감한 조건에서 대명사 단서의 정서적 점화효과를 관찰하였다. 과연 실험 1의 결과가 자동적인 과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2가 실시되었다. 정서점화의 민감성은 사용된 과제와 SOA에 의존한다고 알려졌다(Hermans et al., 2001; Herring et al., 2013). 실험 2에서는 대명사 단어의 제시 조건을 SOA 1000ms로 증가시킨 후, 평가 단어의 점화효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정서적 평가는 자동적인 과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명명과제는 이런 과정에 민감한 과제로 알려졌다. 이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

서 자동적인 과정에 민감하며 반응의 간섭효과도 적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Herring et al., 2013; Musch & Klauer, 2003).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명명과제에서의 정서적 평가의 효과는 SOA 100-250ms에서 민감하였지만 SOA가 1000ms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민감성이 사라졌다(이재호, 2012; De Houwer et al., 2001; Klauer et al., 1997). 실험 1은 점화-목표 자극을 SOA 150ms으로 조작하여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점화효과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복하였다. 동일하게 실험 2에서는 SOA를 1000ms로 증가시켜 정서적 평가의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관찰하였다.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재료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부록 1 참조).

실험절차

일반적인 실험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 2는 SOA 1000ms 조건을 적용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3

실험 2도 명명과제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 3이상인 945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 2120개 중에서 17개이었으며, 제외 반응은 전체 반응의 0.8%를 차지하였다.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정서 수준의 명명시간은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즉 실험 1의 짧은 SOA에서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명명시간에 반영되었지만 SOA가 긴 조건은 자극 단어에 대한 정서적 평가의 민감성이 떨어졌다. 실험 1의 결과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며 이 또한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예; 이재호, 2012; Klauer et al., 1997). 실험 2에서 대명사의 정서적 접화는 매우 한정된 조건에서만 관찰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결과가 정서적 평가에서 매우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선행의 두 실험은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의 평가적 처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Perdue 등(1990)의 집단우위가설은 집단 수준이 개인 수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촉진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억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대명사의 수와 인칭의 변인을 정서적 평가와 체계적으로 조작하지는 못하였다. 즉 의미적 조건형성 패러다임에서 복수 대명사는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를 분류하여 무의미 철자와 체계적으로 조건화시켰고 단수 대명사는 인칭의 구분을 하지 않고 다양한 무의미 철자에 무선적으로 조건화시켰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복수 대명사만 점화과제를 적용하였고 단수 대명사에 대한 적용은 없었다. 반면에 Greenwald 등(2002)의 자기현출가설은 자신(일인칭 단수 대명사)과 타인(삼인칭 단수 대명사)에 대한 IAT에서 두 대명사의 연합 강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이재호(2012)는 대명사 단수의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의 평가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인칭 '나'는 이인칭 '너'에 비해서 긍정적 정서의 촉진과 부정적 정서의 억제가 동시에 발생함을 관찰하

표 2.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및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단수	'나' 접화	506 (11.25)	507 (11.57)
	'그' 접화	506 (10.59)	505 (10.82)
복수	'우리' 접화	500 (10.94)	501 (10.83)
	'그들' 접화	506 (11.46)	510 (11.09)

()안은 표준오차.

였다. 그리고 실험 1의 일인칭 '나와 삼인칭 '그'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단수 대명사의 인칭에 따른 평가는 과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였다.

사회적 표상 이론들은 '자신-타인' 혹은 '내 집단-외집단'으로 사회 범주가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대명사 통사단서는 단수와 복수를 중심으로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으로 세분화된다. 사회적 표상과 대명사 유형을 대응시키면 일인칭 단수는 각각 자신과 내집단에 대응되지만 타인과 외집단은 이인칭과 삼인칭에 대응되기가 어렵다. Perdue 등(1990)은 외집단을 삼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였지만 Greenwald 등(2002)는 타인의 범주에 삼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두 연구 모두 이인칭 대명사를 다른 대명사와 비교하지는 않았다. 이인칭 대명사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영어의 경우 이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을 자신('일인칭')과 타인('이인칭', '삼인칭'), 혹은 내집단('일인칭')과 외집단('이인칭', '삼인칭')으로 규정하였다.

실험 3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이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 간의 평가 비교, 둘째, 복수 대명사 간의 평가 차이의 비교이었다. 즉 이인칭 대명사와 다른 복수 대명사의 평가적 차이를 비교하여 대명사의 세 인칭에 대한 평가적 차이를 종합하고자 하였다. 이미 선행 연구와 실험 1에서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가 각각 자신이나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험 3에서 이인칭 대명사의 복수('너희들')와 단수('너')는 평가적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측하며, 복수 대명사에서 이인칭('너희들')과 삼인칭('그들') 대명사에 비해서 일인칭('우

리')의 정서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방 법

참가자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8명이 실험 3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실험 3은 SOA 150ms 조건에서 네 유형의 대명사(이인칭 단수, 이인칭 복수, 일인칭 복수, 삼인칭 복수)를 점화하여 정서 단어(긍정과 부정 단어)의 명명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 3은 (4*2) 이원피험자내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재료

실험재료의 형식은 실험 1과 동일하다. 실험 3에서는 이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와 '너희'를 사용하여 실험재료를 구성하였다. 실험재료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실험절차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3은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 3. 대명사 수, 대명사 인칭, 및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대명사 수	대명사 수	정서 수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인칭 단수	'너' 접화	464 (9.26)	468 (10.51)
이인칭 복수	'너희' 접화	476 (9.68)	469 (9.75)
일인칭 복수	'우리' 접화	457 (8.97)	469 (9.36)
삼인칭 복수	'그들' 접화	468 (8.66)	468 (9.08)

()안은 표준오차.

표준편차 3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 1920개 중에서 17개이었으며, 제외 반응은 전체 반응의 0.8%였다.

대명사 유형과 정서 수준의 명명시간은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대명사 유형과 정서단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지 두 변인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경계 수준에 머물렀다 [$F(3,141)=2.40$, $MSe=514.53$, $p=.070$]. 대명사 유형과 정서단어의 이원상호작용의 경향성은 긍정단어의 반응시간에서 발생하였다 [$F(3,141)=4.45$, $MSe=495.37$, $p=.005$]. 특히 일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455ms)가 다른 대명사의 반응시간보다 빨랐고,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반응시간도 '우리'에서만 긍정단어(455ms)가 부정단어(467ms)보다 12ms 빨랐다 [$F(47)=2.57$, $p=.013$].

실험 3은 실험 1의 결과를 보완하고 또한 반복하는 결과도 보였다. 이인칭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 대명사는 긍정과 부정 단어의 평가 차이가 없었다(예; 이재호, 2012). 그리고 복수 대명사에서는 일인칭 대명사는 이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이

빨랐다. 또한 이인칭과 삼인칭 복수 대명사의 반응시간은 동일하였다. 실험 3과 실험 1의 결과를 종합하면 단수와 복수 일인칭 대명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촉진적으로 점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이인칭과 삼인칭은 긍정의 촉진이나 부정의 억제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재호(2012)는 단수 대명사의 일인칭('나')과 이인칭('너')의 비교에서 일인칭은 이인칭에 비해서 긍정과 부정 단어의 차이와 더불어 긍정단어의 촉진과 부정단어의 억제 현상을 관찰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자신인 '나'는 타인에 비해서, 특히 상대가 '너'인 경우 삼인칭 '그' 또는 '그들'에 비해서 부정단어에 대한 억제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적 표상에서 '나'와 '너'는 '나'와 '그'에 비해서 상대의 대비적 효과가 약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실험 3에서도 '우리'는 개인 수준의 타인인 '너'와 외집단인 '너희'와 '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편애효과는 관찰되었지만 부정적인 폄하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예; Brewer, 1991; Perdue et al., 1990). 이는 포함과 배제 범주와 편애와 폄하의 평가간의 대칭적 관계의 가정에 일치하지 않는다.

종합 논의

이 연구는 과연 대명사의 통사단서가 사회적 범주의 평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언어가 인지 과정에 작용한다는 연구들은 많았지만 언어가 사회적 표상에 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대명사를 적용한 사회적 표상에 관한 연구들도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지 못했다(이재호, 2012; Greenwald et al., 2002; Housley et al., 2010; Perdue et al., 1990). 이 연구는 3개의 실험을 통해서 대명사의 통사단서를 다원적인 사회적 표상에 대응시켰다. 사회적 표상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표상의 접근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SOA를 통한 시간경과적 접근과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Hermans et al., 2001; Spruyt et al., 2004). 그리고 사회적 표상 이론에 따르면 언어의 통사적 단서가 그에 대응되는 인지적 범주와 그에 연합된 정서적 평가를 활성화시킨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Holtgraves & Kashima, 2008).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의 대응적 관계

실험 1은 단수 대명사와 복수 대명사를 점화하여 정서단어의 명명시간을 비교하였다.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가 명명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단수보다 복수 대명사의 반응시간이 빨랐으며 일인칭이 삼인칭 대명사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그리고 대명사의 인칭과 정서적 평가의 이원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는 일인칭 대명사가 삼인칭 대명사보다 긍정 단어의 명명시간은 빨랐고 부정 단어의 차이

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인칭 대명사는 단수(나)와 복수(우리) 대명사 모두 긍정단어가 부정단어보다 명명시간이 약 12ms 빨랐다. 개인과 집단, 즉 자신과 내집단 긍정정서의 촉진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예; Brewer, 2007; Cadinu & De Amicis, 1999; Perdue et al., 1990; Sendén, Lindholm, & Sikström, 2014). 실험 2는 SOA를 1000ms 지연시켰다. 예측한 바, 대명사의 수와 인칭에 따른 정서적 평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또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재호, 2012; Klauer et al., 1997; Musch & Klauer, 2003). 두 실험은 대명사에 의한 사회적 범주의 평가적 처리가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수준에서만 탐지된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실험 3은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를 비교하였으나 두 대명사의 평가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예; 이재호, 2012). 그리고 세 인칭의 복수 대명사들을 비교하였을 때 일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만이 긍정단어가 부정단어에 비해서 명명시간이 빨랐다.

3개의 실험은 대명사의 수와 인칭을 고려하여 각 대명사에 따른 정서적 평가의 차이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단수나 복수 대명사 모두 일인칭 대명사에서는 긍정단어의 촉진적인 점화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에서는 긍정과 부정 단어의 점화효과가 없었다. 복수 대명사의 긍정단어의 촉진효과는 Perdue 등(1990)의 집단우위가설과 일치하며, 단수 대명사의 긍정단어의 촉진효과는 Greenwald 등(2002)의 개인현출가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두 가설 모두 개인과 집단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지만, 이 연구는 자신과 내집단을 점화한 일인칭 대명사의 촉진적 점화효과만 동시에 관찰되었고 그 크기도 유사하였다.

즉 자신('나')과 집단('우리')이 긍정적으로 표상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자신의 자존감이 집단을 수용하는 주체자로 간주하는 균형이론과 일치하는 양상이다(예; Greenwald et al., 2002). 반면에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한 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의 추상적인 속성에 근거한 하향적 범주가 개인의 사회적 표상에 핵심이 된다(예; Perdue et al., 1990). 사회적 표상에 대해서 두 입장이 각각 '자신>집단'의 상향적 처리와 '집단>자신'의 하향적 처리로 대비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두 수준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사회적 표상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요구된다.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의 통합적 조망

Greenwald 등(2002)은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이론적 가정이다. 정체성이론은 표상적 위계 구조를 강조하는 상징주의적 이론인 반면 균형이론은 비위계적인 연합 구조를 강조하는 연결주의적 입장이다. 이 가정만으로는 개인-집단의 평가적 차이를 설명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두 이론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본다면 두 이론의 혼합(hybrid) 이론을 가정할 수 있다고 보겠다(예; Smolensky, 1988).

상징주의 입장은 범주 수준을 상위 수준의 추상적 표상(abstract representation)과 하위 수준의 구체적 표상을 가정할 수 있다. 상위 범주는 집단적 범주이며 추상적인 표상으로 구성되며 하위 범주는 자신의 범주이며 구체적 실체(exemplar)의 표상으로 구성된다. 통사단서로서 '우리'는 매우 추상적이다. 어떤 사회 범주나 화용적 맥락의 구성원들을 지칭할 수 있지

만 그에 비해서 '나'는 '우리'에 비해서는 구체적이다. 사회적 범주가 집단과 개인의 위계로 구성되었다면 하위의 자신이 상위의 범주에 동화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사회정체성이나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인 것이다(Turner et al., 1987). 반면에 연결주의 입장은 상징적인 표상보다는 비위계적인 연결망을 가정한다. 상호작용적 처리(processing)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다. 균형이론은 자신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연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며, 집단은 자신과 연합되며, 집단은 자신의 긍정적인 연합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연합이 연결되어야 '자신-집단-긍정'의 일치적 표상이 구성된다(Greenwald et al., 2002). 이런 설명은 균형-일치성 이론과 일치한다(Cvencek et al., 2012). 즉 정체성이론은 사회적 범주의 위계적 표상을 강조하는 이론이며 균형이론은 사회적 표상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두 이론의 통합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둘째, 사회적 표상의 처리과정이다. 정체성이론에서 개인의 자존감은 상위 범주의 속성에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균형-일치성이론은 개인의 자존감이 사회 범주의 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소규모 집단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포함 관계는 두 이론에 차이가 있다. 정체성이론은 집단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균형-일치성 이론은 역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Greenwald et al., 2002, p. 20). 두 이론은 자존감의 처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균형이론은 자존감에는 이미 정서적인 평가가 애초값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정체성이론은 집단의 추상

적 요인에 대한 동기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두 이론은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이론이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면 개인 수준의 자존감과 집단 수준의 정체성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상위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하위의 자존감에 하향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하위의 자존감이 상위의 범주를 활성화는 과정으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존감은 사회적 범주 수준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Gaertner 등(2002)은 메타분석을 통해서 개인적 자기가 자기-정의의 기반이 되며 집단적 자기보다 환경의 위협과 중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자기가 심리적 기반이며(self-anchoring process, Cadinu & Rothbart, 1996; Frings & Wentura, 2014) 맥락적 영향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안정된 체계임을 강조하였다. Slatcher 등(2008)은 연인관계에서 두 연인은 '나'를 '우리'보다 많이 사용하며 그런 경우에 보다 두 연인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표상은 '개인-관계-집단' 수준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표상은 개인 내의 인지적 표상으로 볼 수 있다(Brewer & Gardner, 1996; Leonardelli & Toh, 2015). Brewer와 Gardner(1996)에 따르면 어떤 표상을 강조하는지는 동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상황이 사회적 표상의 동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자신의 '개인-집단'의 두 수준의 표상이 고정된 표상을 형성하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체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존감은 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관조하는 문화적 관점(perspective)에 따라 '자신-집단'에 역동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며(최상진, 김기범, 1999),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의 현출적 요인(saliency effects)에 가변적일 가능성도 있다(예; Brewer, 2007; Gaertner et al., 2002; Sui, He, & Humphreys, 2012). 예를 들어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화용적인 사용은 매우 독특하다. '나의 집' 대신에 '우리 집'을 사용하더라도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나의 아내' 대신에 '우리 아내' 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김정남, 2003). 그러면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그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화자를 포함하기 보다는 '나'와 '아내'를 포함하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는' 집단적인 의미기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 한정된다. 비록 내적으로는 '나의 아내'이지만 상황적 맥락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우리 모두'를 함의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겠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내적인 의도('나의 것')와 외적인 의미('우리 모두')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방법론의 문제이다. 정체성이론은 점화과제를 적용하였고, 균형이론은 IAT를 적용하였다. 두 과제는 모두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과정에 적절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절차와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3개의 실험을 종합하면 사회적 범주의 표상은 자동적이고 암묵적 수준에 보다 민감하다는 증거를 보였으며 대명사의 수와 인칭 단서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정체성이론과 균형이론의 주장을 점화과제에서 수렴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서적 평가의 편애와 폄하의 비대칭성

사회적 표상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는 이인칭이나 삼인칭 대명사에 비해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에 대한 긍정단어의 촉진효과만 관찰되었다. 즉 일인칭 단수와 복수 대명사의 편애효과는 관찰되었고, 이인칭과 삼인칭 대명사의 폄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erdue 등(1990)의 일인칭 복수의 편애와 삼인칭 복수의 무편하에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인칭 단수도 복수 대명사와 함께 편애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고, 이인칭과 삼인칭 대명사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항상 배제된 범주에 포함되고 모두 동질적으로 평가(outgroup homogeneity bias)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예; Sendén et al., 2014). 그러나 이재호(2012)는 일인칭과 이인칭 맥락에서 편애와 폄하의 효과를 동시에 관찰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표상에서 '나-너'는 '우리-그들'에 비해서 편애와 폄하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개인 간의 관계적 수준에서는 '자신-편애'와 '타인-폄하'의 표상이 대비되지만 집단적 수준에서는 '내집단-편애'와 '외집단-무편하'로 대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Bless & Burger, 2016; Cadinu & Rothbart, 1996; Karpinski, 2004). 종합하면 '개인-관계-집단'의 표상 위계에서 '포함-배제'의 범주, '편애-폄하'의 평가가 역동적임을 시사한다(예; Gardner, Gabriel, & Lee, 1999).

언어는 분명 인간이 표상과 소통을 위해 만든 도구이지만 언어는 점차 인지와 정서에도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가장 언어적인 대명사의 통사적 단서가 사회적 정보의 단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이들 단서가 사회적 범주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범주의 평가적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명사의 통사단서와 사회적 표상이 암묵적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보였다. 더욱이 사회적 표상의 수준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신과 내집단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증거는 두 표상이 병렬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언어의 사회적 의미가 표상의 수준에 따라 다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추상적인 문화적 맥락이나 동기적 요인이 하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역동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정남 (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257-274.
- 김한샘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원.
- 이재호 (2006). 성별 고정관념의 암묵적 표상과 자동적 점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41-61.
- 이재호 (2012). 대명사 '나'와 '너'의 사회인지적 표상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261-278.
- 이재호 (2015). 대명사의 성별단서에 담긴 사회인지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87-107.
- 이재호, 김성일 (1998). 언어 이해과정의 연구 방법. 이정모, 이재호 (공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언어와 인지* (155-182쪽). 서울: 학지사.
- 이재호, 이정모 (2000). 개념 지식의 유형에 따른 표상 차이: 범주와 각본의 위계성과 전형성 비교. *인지과학*, 11, 73-81.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75-292.
- Balota, D. A., & Lorch, R. F. (1986). Depth of automatic spreading activation: Mediated priming effects in pronunciation but not in lexical decis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2, 336-345. doi:10.1037/0278-7393.12.3.336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gh, J. A., Chaiken, S., Raymond, P., & Hymes, C. (1996). The automatic evaluation effect: Unconditionally automatic attitude activation with a pronunci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04-128.
- Blair, I. V., & Banaji, M. (1996).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in stereotype pr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Bless, H., & Burger, A. M. (2016).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social priming.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2, 26-31.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75-482.
- Brewer, M. B. (2007). The importance of being we: Human na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62, 728-738. doi: 10.1037/0003-066X.62.8.728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Cadinu, M. R., & Rothbart, M. (1996). Self-anchoring and differentiation processes in the minimal group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661-677. doi:10.1037/0022-3514.70.4.661
- Cadinu, M. R., & De Amicis, L.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and the ingroup: When having a common conception help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8, 226-232. doi:10.1024//1421-0185.58.4.226
- Collins, A. M., & Loftus, E.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6.
- Cvencek, D., Greenwald, A. G., & Meltzoff, A. N. (2012). Balanced identity theory: Evidence for implicit consistency in social cognition. In B. Gawronski, & F. Strack (Eds.), *Cognitive consistency: A unifying concept in social psychology* (pp. 157-177). New York: Guilford Press.
- De Houwer, J., Hermans, D., & Spruyt, A. (2001). Affective priming of pronunciation responses: Effects of target degrad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85-91.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azio, R. H., Sanbonmatsu, D. M., Powell, M. C., & Kardes, F. R.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rings, C., & Wentura, D. (2014). Self-priorization processes in action and 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40, 1737-1740. doi:10.1037/a0037376
- Gaertner, L., Sedikides, C., Vevea, J. L., & Iuzzini, J. (2002). The "I," the "we," and the "when": A meta-analysis of motivational primacy in self-defi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574-91.
- Gardner, W. L., Gabriel, S., & Lee, A. Y. (1999). 'I' value freedom, but 'we' value relationships: Self-construal priming mirrors cultural differences in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0, 321-326.
- Glaser, J., & Banaji, M. R. (1999). When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Reverse priming i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669-687.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n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Hermans, D., De Houwer, J., & Eelen, P. (2001). A time course analysis of the affective priming effect. *Cognition and Emotion*, 15, 143-166.
- Herring, D. R., White, K. R., Jabeen, L. N., Hinojos, M., Terrazas, G., Reyes, S. M., & ... Crites, S. J. (2013).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A quarter century of evaluative priming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9, 1062-1089. doi:10.1037/a0031309
- Hogg, M. A., & Williams, K. D. (2000). From I to we: Social identity and the collective self.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 81-97.
- Holtgraves, T. M., & Kashima, Y. (2008). Language, meaning, and social cogni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73-94.
- Housley, M. K., Claypool, H. M., Garcia-Marques, T., & Mackie, D. M. (2010). "We" are familiar but "it" is not: Ingroup pronouns trigger feelings of famili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14-119.
- Klauer, K. C., Rosnagel, C., & Musch, J. (1997). List-context effects in evaluative prim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 246-255.
- Karpinski, A. (2004). Measuring self-esteem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role of the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22-34.
- Lee, J-M., & Lee, J-H. (2005). Contrast information processing in discourse comprehens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 69-92.
- Leonardelli, G., J. & Toh, S. M. (2015). Social categorization in intergroup contexts: Three kinds of self-categoriz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9, 69-87, doi: 10.1111/spc3.12150
- Macrae, C. N., & Bodenhausen, G. V. (2000). Social cognition: Thinking categorically about

- oth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93-120.
- Musch, J., & Klauer, K. C. (2003). *The psychology of evaluation*. Hillsdale, NJ: Erlbaum.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Neely, J. H. (1991). Semantic priming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selective review of current findings and theories. In D. Besner & G. W. Humphrey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Visual word recognition* (pp. 264-336). Hillsdale, NJ: Erlbaum.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164-1178.
- Schilling, H. E. H., Rayner, K., & Chumbley, J. I. (1998). Comparing naming, lexical decision, and eye fixation times: Word frequency effec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Memory & Cognition*, 26, 1270-1281.
- Sendén, M. G., Lindholm, T., & Sikström, S. (2014). Evaluations of “I” and “We” differ between contexts, but “They” are always worse.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3, 49-67.
- Slatcher, R. B., Vazire, S., & Pennebaker, J. W. (2008). Am “I” more important than “we”? Couples’ word use in instant messages. *Personal Relationships*, 15, 407-424.
- Smolensky, P. (1988). On the proper treatment of connectionism.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1, 1-74.
- Spruyt, A., Hermans, D., De Houwer, J., & Eelen, P. (2004). Non-associative semantic priming: Episodic affective priming of naming responses. *Acta Psychologica*, 116, 39-54.
- Sui, J., He, X., & Humphreys, G. W. (2012). Perceptual effects of social salience: Evidence from self-prioritization effects on perceptual match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38, 1105-1117. doi:10.1037/a0029792
- Turner, J. C., Hogg, M., Oakes, P., Reicher, S.,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England: Blackwell.

1차원고접수 : 2016. 07. 14.

수정원고접수 : 2017. 01. 31.

최종게재결정 : 2017. 03. 23.

The Difference of Social and Cognitive Representation between 'I' and 'We'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of pronoun's number (singular and plural), pronoun's person (first and third), and emotional evaluation (positive and negative) using time-course approach (e.g. SOA 150ms and 1000ms) and primed naming task.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each pronoun as primes at SOA 15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at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effects of pronoun' number, pronoun's person and emotional words were found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pronoun's person and emotional words were also found. The interaction effects was obtained by the primed effect of first person pronoun's ('I' and 'we') positive evaluation.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each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at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effects of any variables were not found. In Experiment 3, participants were presented second-person singular pronouns and all plural pronouns as primes at SOA 15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at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emotional words were found only at first-person plural pronoun 'w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first-person singular pronoun 'I' and first-person plural pronoun 'we' were more primed at positive words than negative word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multiple level representations of social cognition.

Key words : pronoun, priming effect, social cognition, emotional evaluation, naming task

부록 1. 실험에서 사용된 점화단어의 종류와 목표단어의 정서가와 빈도

	점화단어						목표단어					
	나	너	그	우리	너희	그들	긍정어	정서가	빈도	부정어	정서가	빈도
1	나	너	그	우리	너희	그들	배려	1.2	75	독선	4.3	13
2	나는	너는	그는	우리는	너희는	그들은	성실	1.6	19	허풍	4.6	9
3	나를	너를	그를	우리를	너희를	그들을	사랑	1.3	1424	잔인	4.9	2
4	나의	너의	그의	우리의	너희의	그들의	애정	1.4	221	질투	3.8	46
5	나처럼	너처럼	그처럼	우리처럼	너희처럼	그들처럼	건강	2.1	530	허약	3.1	9
6	나와	너와	그와	우리와	너희와	그들과	부모	1.5	617	폭력	4.5	361
7	나만	너만	그만	우리만	너희만	그들만	천사	1.6	80	악마	4.6	56
8	나도	너도	그도	우리도	너희도	그들도	스승	1.8	131	간첩	4.2	63
9	나뿐	너뿐	그뿐	우리뿐	너희뿐	그들뿐	나비	2.7	100	거미	3.1	32
10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간호	2.6	17	강도	4.6	59

* 실험 단어의 정서가는 대학원생 10명에게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1점은 가장 긍정이며, 3점은 보통, 5점은 가장 부정이었다. 긍정단어는 평균이 1.7(.8)점이었고 부정단어는 평균 4.1(.1)이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F(1,9)=164.29$, $MS_e=1.73$, $p=.000$]. 단어 빈도는 3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사용된 빈도수이다(김한샘, 2005). 긍정단어(평균=321, 표준편차=440)와 부정단어(평균=65, 표준편차=106)의 빈도수의 차이는 없었다 [$t(18)=1.79$, $p=.090$].